한국_Korea 생활속담

날짜 : 2025년 12월 14일 8:46 오후

타이틀	설명
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	힘센 것들이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약자가 공연히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
겉 다르고 속 다르다	속내에 품은 생각과 실제 행동이 같지 않아서 사람이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
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면 좋아한다	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못 되더라도 칭찬을 해 주면 좋아한다
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	실행하지 못할 것을 공연히 의논함을 이르는 말
공든 탑이 무너지랴	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으며 그만한 보람이 있으리라는 말
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	조금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
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	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굴에 들어가야 범을잡는다	일을 성취하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
고양이 쥐 생각	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 리 없듯이, 당치 않게 누구를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
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	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하면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